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충남방적

영국에서 번성했던 면방공장의 가장 큰 위협은 화재였다. 따라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방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연구와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 과정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발전을 맞게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방이래 몇몇 대규모의 면방공장에서 화재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81년 원면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한 후 화재안전 제일주의를 내걸고 짜임새있으면서 활발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남방적 대전공장을 방문, 방재시설현황과 방화관리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 공장 개요

대전은 철도·고속도로 등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부에 위치해 행정·경제·문화·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만한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편리한 교통망에 힘입어 섬유·화학·기계·제지·피혁 등의 경공업이 발달해 충남권 공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 행정기능일부의 이전과 연구단지의 정착 및 활성화로 테크노폴리스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곳 대전직할시 중구 원내동 1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방적(주) 대전공장은 26만3천3백여 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9만4천6백여 평의 공장건물과 6천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국내최대의 면방적종합메이커이다.

1979년 3월 9일 준공된 대전공장은 42만추(정방기 2,200대)의 방적시설과 3천3백50대의 직포시설, 월 1천4백만미터의 염색가공시설을 갖추고 면사, 직물, 가공직물을 생산 수출하는 충남 제일의 수출공장이다.

• 방화대책

이 공장은 면방공정의 특성상 공장건물의 단위면적이 크게는 10만여 평방미터에서 작게는 수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원면을 사용하므로 화재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한번의 사고에서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뒤따르는 공장이다. 따라서 모든 방화대책은 화재발생요인의 근본적인 제거

와 조기감지, 신속한 진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건물의 내장재를 불연화하였으며, 공정별 방화구획으로 출화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적공장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원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전공정에 걸쳐 지하터널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분진의 회수율을 높이고, 전기배선을 플로워닥트방식으로 전면 교체하여 반자속에는 일체의 전기시설을 없애 전기스파크에 의한 발화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시설로 초기소화기는 물론이고 3백82개 회로의 자동화재탐지설비, 2백27개소의 옥내소화전, 54개소의 옥외소화전, 신형 소방차 2대, 물분무소화설비 등 기준 이상의 소방시설을 갖추어 조기감지와 초기진압으로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지, 운영하고 있다.

• 방화관리조직 및 운영

회장→상무→관리차장→안전과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는 신속성과 일사불란을 자랑으로 한다. 시설보수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시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교



육성과가 대단하다고 한다.

직장방화조직은 전체종업원중에서 선발된 자위소방대(8개대 779명)와 부녀소방대(21명의 요장을 중심으로 238명)가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직장소방대가 있어 각 부서장 책임하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차 2대와 청원소방관 9명, 경비원 44명으로 편성된 사내소방대의 비중이 크다. 이들 소방대는 진압능력과 기동력을 인정받아 인근에 화재 발생시에는 대전소방서로 부터 직접 출동지령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듯이 소방대의 정예화와 기동력을 갖춰 소방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교육 및 훈련

직접 불을 피워놓고 실시하는 가상훈련시에는 전직원이 참여, 소방장비의 사용요령과 초기진압요령, 진압요령, 대피요령 등을 반복 실시한다. 특히 초동진압에

초점을 맞춰 사내소방대가 도착하기전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국소진압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이때 사용하는 소화기는 제한없이 이용한다고 한다.

교육은 매월 안전과주관으로 안전교육교재인 안전표준지침서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하며 남자직원들에게는 특히 흡연에 관한 규제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구내 24개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은 하루 6회 실시한다. 순찰시 유의사항은 작업위해요소, 소방시설의 유지상태, 작업장 청결상태(특히 원면분진), 흡연규정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흡연규정 위반시에는 즉시 인사조치가 취해진다.

『가장 신경쓰는 것이 불티이기 때문에 흡연시간과 장소가 엄격히 제한되며, 용접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안전조치후 작업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영용 안전과장은 『하찰

은 곳에 큰 위험이 있음』을 각 순찰조마다 주지시킨다고 한다. 특히 원면창고는 야간순찰시 반드시 창고를 열고 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휴무가 있을 때는 작업 종료후 2시간 정도 경과된 후 청원소방관과 각 부서 안전관리자 전원을 소집, 작업장내를 세심하게 재확인한다고 한다.

『간혹 현장에서 소규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즉시 철저한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므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거의 없다』는 이운호 관리차장은 『다만 공휴일을 전후하여 심리적으로 긴장이 풀릴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차장은 이어 『우리공장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자랑하면서 『인위적인 실수에 의한 사고는 없었으나 공정중에서 간혹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소방용품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호환성이 부족하며, 특히 표시램프의 수명이 짧아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하고 『방화용품의 품질향상과 표준화 문제에 있어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방직 대전공장에서 느낀 점은 법규나 외부기관의 간섭에 의한 화재예방활동이 아닌 직원 스스로가 위험성을 느껴 기업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주인 의식이 살아있는 한 무재해기록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M)

● 취재 / 이상 건 홍보부 대리